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 강원도 평창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시선, 평창으로

지구촌 '눈과 얼음 축제' 2월9일 개막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세계인의 '눈과 얼음의 축전'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9일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하계) 이후 정확히 30년 만이다.

평창 대회 개최로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두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됐다.

동·하계올림픽 개최국이라는 훈장을 얻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랐다.

평창은 당초 2010년 올림픽 개최를 노렸지만 200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밴쿠버(캐나다)에 고배를 마셨다.

1차 투표에서 51표를 얻어 최다득표를 했지만 2차 투표에서 3표차로 뒤집혔다. 2007년 총회에서도 1차 투표 최다득표, 결선 투표 4표차 패배로 2014년 대회 개최권을 소치(러시아)에 내줬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번째 도전을 위해 다시 뛰었다. 두 번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단점을 보완하고,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2011년 7월6일 더반(남아프리카공화국) 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목표를 이룬 강원도와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경기장과 시설을 손봤다.

최근에는 KTX가 개통돼 서울과 평창을 1시간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다. 2시간16분이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강릉에 도착할 수 있다.

숙소, 교통, 편의 시설도 재정비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90여개국이 경쟁을 벌인다.

29일 최종 엔트리 마감에 앞서 변수는 존재하지만 4년 전 소치 대회에서의 88개국은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격 참가 결정은 평화와 화합을 구현하는 올림픽 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참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북한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태도를 바꿨다.

안방에서 동계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를 노린다.

기존의 최고 성적은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의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당시 한국은 종합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주자인 이상화(29·스포츠토토)는 여자 500m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세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른 선수는 미국의 보니 블레어(1988·1992·1994) 뿐이다.

4년 주기로 3개 대회를 연달아 제패한 이는 전무하다.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에서도 무더기 금메달이 기대된다.

여자 대표팀을 쌍끌이 하는 최민정(20·성남시청)과 심석희(21·한국체대)는 다관왕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소치 노메달'로 체면을 구긴 남자대표팀은 안방에서 부활을 꿈꾼다.

스켈레톤의 윤성빈(24·강원도청)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 치중된 '메달 편식'을 풀어줄 강력한 후보다.

체대입시를 준비하던 평범한 고교생이던 2012년, 이름도 생소한 스켈레톤에 뛰어들었고 어느덧 올림픽 금메달까지 넘보고 있다. 이번 시즌 6차례 월드컵에서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해 예열을 마쳤다.

해외에서 날아올 스타들의 면면 또한 화려하다. '스키 여제' 린지 본(34·미국)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에서 유종의 미를 노린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대명사로 비디오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 숀 화이트(32·미국) 역시 만날 수 있다.

화이트는 14일 미국 콜로라도주 스노매스에서 열린 2018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100점 만점으로 1위에 올라 평창에서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세계 남자 피겨계를 주름 잡고 있는 소치 대회 우승자 하뉴 유즈루(24·일본)와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의 스벤 크라머(32·네덜란드) 역시 평창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낸다.

/뉴시스

남자농구 대표팀 12명·예비엔트리 확정

라틀리프·두경민, 허재호 승선… 내달 월드컵 예선 출격

귀화 절차를 끝낸 리카르도 라틀리프(삼성·199cm)와 프로농구 1위 원주 DB의 심장 두경민(DB·184cm)이 허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5일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남자농구 월드컵' 조별 예선전에 출전할 2018 한국남자농구 대표팀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23일과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홍콩, 뉴질랜드와 경기에서 출전할 12명의 선수 명단을 선발했다.

귀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라틀리프가 곧바로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라틀리프는 오세근, 이종현 등과 함께 대표팀 골밑에 힘과 높이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두경민도 최근 프로농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높이 평가 받아 대표팀에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정확도 높은 외곽슛과 활발한 움직임으로 대표팀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라틀리프와 두경민이 포함되는 대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김시래(LG)와 발목 수술로 경기 출전이 어려운 이승현(상무)이 제외됐다.

◇ 2018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허재

▲코치 김상식

▲가드-박찬희(전자랜드·190cm), 두경민(DB·184cm), 최준용(SK·200cm), 허훈(KT·181cm)

▲포워드_양희종(KGC·194cm), 이정현(KCC·191cm), 전준범(현대모비스·194cm), 허웅(상무·186cm)

▲센터_오세근(KGC·200cm), 김종규(LG·206cm), 이종현(현대모비스·203cm), 리카르도 라틀리프(삼성·199cm)

◇ 예비엔트리 24인 선수명단

▲가드-박찬희, 두경민, 최준용, 허훈, 김시래, 김태술, 이대성

▲포워드-양희종, 이정현, 전준범, 허웅, 정효근, 최진수, 임동섭, 허일영, 양홍석, 송교창

▲센터-오세근, 김종규, 이종현, 리카르도 라틀리프, 하승진, 강상재, 최부경

/뉴시스

넥센, 김하성 데뷔 5년차 최고액 3억 2000만원 연봉계약 완료

지난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김하성이 5년차 최고액인 연봉 3억2000만원을 받는다.

넥센 히어로즈는 2018년 연봉 계약 대상자 40명 전원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시즌 유격수 겸 4번 타자로 활약한 김하성은 전년도 연봉 2억2000만원에서 1억원(45.5%) 인상 된 3억2000만원에 사인했다.

김하성은 지난 시즌 141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2(526타수 159안타) 23홈런 114타점 90득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유격수로는 역대 3번째로 100타점을 기록하는 등 4번 타자로서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았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대표팀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다.

김하성은 KBO리그 역대 데뷔 5년차 최고 연봉자가 됐다. 2016시즌 나성범(NC)이 기록한 3억원을 넘어섰다.

올 시즌 선발투수로 활약하며 데뷔 첫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한 최원태는 지난해 연봉 4500만원에서 1억500만원(233.3%) 오른 1억5000만원에 계약하며 데뷔 4년 만에 억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신인왕을 휩쓴 이정후는 무려 8300만원(307.4%) 인상된 1억10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2년차에 억대 연봉자가 됐다.

40명 중 18명은 연봉이 올랐지만 13명은 삭감됐다. 나머지는 동결이다.

억대 연봉자는 투수 7명과 야수 6명 등 총 13명이다.

/뉴시스

K리그 챌린지, 3월3일 팡파르…36라운드 진행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정규라운드(1~36라운드)와 플레이오프 일정을 25일 밝혔다.

공식 개막전은 3월3일 오후 2시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리는 부산아이파크와 성남FC의 맞대결이다.

대전과 광주 역시 3월3일 각각 부천과 안양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K리그2만의 이색상품인 '먼데이 나이트 풋볼'은 올해도 계속된다.

올 시즌 첫 먼데이나이트풋볼 경기는 5월14일 수원FC와 안산, 부천과 아산의 맞대결로 각각 수원종합운동장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정규리그 36라운드를 마친 후에는 K리그1 승격을 위한 단판승부인 K리그2 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K리그2 정규 라운드 3위팀과 4위팀이 11월28일 준플레이오프를 갖고, 승리팀은 정규라운드 2위팀과 12월1일 혹은 2일 격돌한다.

정규 라운드 일정은 20여개의 조건을 대입해 산출한 것들 중 가장 균형있고 공평한 스케줄을 채택한다.

주요 조건으로는 ▲동일팀과 경기 후 일정 기간 리턴매치 불가 ▲홈 또는 원정 연속경기 3회 미만(경기장 사정으로 인한 팀은 예외) ▲주말(토·일) 홈경기 분산 개최 등이다.

/뉴시스

아스날, 첼시 잡고 컵대회 결승행

아스날이 첼시를 따돌리고 2017~2018 카라바오컵(EFL컵) 결승에 안착했다.

아스날은 2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 2차전에서 2-1로 이겼다.

원정으로 치러진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아스날은 1, 2차전 합계 1승 1무로 첼시를 제압했다.

아스날은 이미 결승에 진출한 맨체스터 시티와 다음달 25일 트로피를 놓고 맞붙는다.

아스날은 1992~1993시즌 이후 25년 만에 이 대회 정상 등극을 노린다.

/뉴시스